해 외 WORLD

‘세계불교포럼’ 중국 · 대만 화합 상징

이연걸 “지구촌 수호 불교만이 실행 가능”

한국불교 대표들이 3월 28일 중국 장쑤성 우시 영산대불에서 열린 ‘세계불교포럼’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위) 사진제공=조계종 홍보팀. 중국불교협회장 일성 스님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예사오원 회장 등이 각국에서 가져온 물을 합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강신문

불교를 통한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마련된 ‘제2차 세계불교포럼’이 대만 타이베이체육관에서 ‘제2차불교포럼 선언’을 채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세계화합과 모든 인연의 화합’을 주제로 3월 28일~4월 1일 중국과 대만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정치적 대립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대만에서 개 · 폐회식이 각각 진행돼 개최 전부터 세계 불자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중국불교협회,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대만 국제불광회, 홍콩불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해 포럼의 주제인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에 일각에선 양안(兩岸) 관계 회복에 ‘화합의 종교’인 불교가 앞장선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중국 장쑤성(江蘇省) 우시(無錫) 영산대불 내 영산범궁(靈山梵宮)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중국과 대만측 불교 지도자를 포함해 50여 개국 607명의 대표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정산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태고종 대외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 등 사부대중 41명이 참가했다.

개막식에서 중국불교협회장 일성(一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2회 세계불교포럼은 중국과 대만 양안불교의 성대한 행사이며 세계불교의 큰 잔치”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도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 이 법석이 고통받는 인류와 신음하는 지구촌의 공생공존을 서원하고 실행하는 뜻깊은 시작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가 대만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세계불교도의 기원이 성취되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영화배우 이연걸(李聯杰)씨가 기조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불교는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구촌을 아름답게 수호해나가는 것이 인류의 과제라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불교”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보의 빛-대장경의 정리, 보호와 연구 △불교교육의 기회와 도전 △불교수행학습 체계의 건립과 반성 등 16개 소주제의 분과토론이 진행됐으며, 한국대표로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 스님, 총지종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등이 각 분과에서 주제발표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조선불교 도연맹 심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불교 관계자들도 참석해 한국불교 대표들과 인사를 나눠 또 하나의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또한 4월 1일 대만 타이베이 덴웰호텔에서 열린 폐막 환송만찬에서 정산 스님은 “남쪽에서 개회하고 북쪽에서 회향하는 남북불교도 행사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해 심 위원장을 비롯한 1000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네팔에 ‘세종 한국문화·언어교육원’ 설립

영봉 스님 지난해 12월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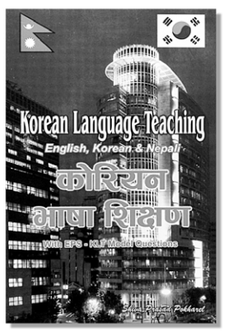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한국어 학교가 설립돼 현지인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카트만두 발루와따르 지역에 설립된 ‘세종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원장 영봉, 이하 교육원)이 작년 12월 15일부터 3개월 과정의 제1기 한국어 강좌를 진행했다. 개원과 함께 시작한 첫 학기 수업에는 현지인 100명이 두 반으로 나뉘어 참여해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원은 네팔 현지인들에게 한국어와 역사 등을 교육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성지순례나 트레킹 등반 등을 위해 네팔을 찾은 한국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레킹과 여행 가이드, 셸파 등에 종사하는 현지인들과 빈곤층 무학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를 위해 교육원은 한국어 영어 네팔어로 구성된 교재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강사진은 현지인 가운데 한국어를 공부한 2명의 정교사와 10명의 보조교사, 한국인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중급과정과 고급과정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컴퓨터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원의 동계 학기는 매년 12월 15일에서 익년 3월 15일까지, 하계 학기는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올 하계 학기에는 지난 동계 학기에서 초급과정을 수료한 100명이 중급으로 진급하고 다시 초급과정 100명이 입학할 예정이어서 교육원의 참여자는 학기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20여 년 간 히말라야 등지에서 정진하며 미얀마 난민 돕기 운동을 펼쳐 온 영봉 스님은 “네팔지역에 한국의 문화와 언어,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원력이 있었는데 공주 신원사 주지 지성 스님과 이근후 박사님 등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지난 겨울에 개원을 하게 됐었다”며 “막상 개원을 하고 보니, 관광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현지인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무직자들도 취업의 희망을 안고 한국어 배우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현지의 규정 때문에 약간의 수업료를 받지만 전액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교육원은 교재의 보완과 사전 제작 등 교육 자료를 확충하는 등 여름 학기 준비에 들어갔다.



영봉 스님은 네팔 카트만두에 ‘세종 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을 2008년 12월 개원했다. 사진은 한국어 강좌 수업 모습(위)과 한국어 교재.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자비쌀 지원 시작

생명나눔 올 신규사업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2009년 신규 사업으로 환자들에게 20㎏의 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명나눔에는 1년에 약 130명 정도의 환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데 올해 지원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약 50명 정도로 80여 환자들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생명나눔은 80여 환자들에게 자비의 쌀 나누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쌀 한 포대가 단순한 쌀이 아닌 부처님의 자비로 다가가 병마로 싸우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생명나눔은 4월 16일 오전 11시~오후 1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한다솜 희망 음악회’를 개최한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대작불사 공덕 성불 인연 되기를…”

보문사, 경산에 삼성사 · 불교복지관 착공

대구 보문사는 3월 29일 경산 삼성사와 불교복지관 착공식을 봉행했다.

대구 보문사(주지 도성)는 3월 29일 경산 삼성사 및 불교복지관 불사 착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과 원로의원 정무 스님을 비롯해 지역 단체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밀운 스님은 “대작불사로 큰 공덕을 지어 마련한 이 좋은 자리에 부처님 제자로 만난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다. 이 불사가 우리들에게 성불의 인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삼성사 대웅전 법당은 165㎡, 요사채는 925㎡ 규모로 2010년 3월 완공 예정이다. 불교복지관은 5층 1652㎡ 규모로 노인요양시설, 노인 병원을 갖춰 실버타운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노인생명보듬이’

일산복지관 10월까지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은 2009년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인 ‘노인생명보듬이’ 사업을 3~10월 실시한다. 이 사업은 노인자살예방 상담 및 노인종합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30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마친 5명의 노인생명돌보미가 우울노인 및 노인자살위험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 의뢰받아 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관은 4월 2일 전통찻집인 ‘다향당(茶香堂)’을 오픈했다. 찻집은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능인 스님은 “전통찻집을 오픈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고 전통차 판매를 통한 차 문화의 보급과 전통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031) 919-8677

이나은 기자

화제의 신간
新 토정비결
2009 년(己丑年) 천년 약속 평생운세
내 운명, 내 운세는 내가 본다!!
21세기 新개념의 평생운세! 토정식 백광비결
현대인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실생활에 맞는 운세풀이로
결혼이나 재혼을 앞둔 남녀의
배우자를 고르는 법과
후천적인 운명의 행운을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 저술하였다.
역술학의 성전...
지금바로 펼쳐보십시오!!
白珖(백광) 지음 / 신국판 / 352쪽 / 정가 15,000원
전국서점 판매중!
21세기 新 개념의...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새 시대에 세계의 의학계를 선도할 ‘사주명리 한방처방학’이 드디어 출간, 세상에 나왔다!
전통 한의학과 음양오행학을 연결!!! 新 한의학 이론을 체계화!! 누구나 신개념의 한방처방이 한눈에 쏙쏙!
徐昇煥 지음 / 4×6배판 / 양장본 / 上권 880쪽, 中권 680쪽 / 각 권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